"송영길 손 잡아달라" 가족들 눈물로 지지 호소

'옥중 출마' 宋 소나무당 대표 배우자·자녀 안타까운 선거운동
보석 신청에도 법원 '묵묵부답'…"유세라도 한번 할 수 있길"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 출정식에 배우자 남영신씨, 아들 주환씨가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가족들이 선거 운동을 대신하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배우자 남영신씨와 아들 주환(28)씨가 송 대표의 석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만 28세의 주환씨는 현재 연세대학교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송 대표의 인천시장·당대표·최고위원 선거 등 아버지의 모든 선거를 함께 했다는 그는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해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자'는 마음으로 또 다시 아버지 선거를 위해 뛰어 들었다고 한다.

주환씨는 지난 26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세 한 번 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송영길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법원을 향해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 번 애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배우자인 남씨도 지난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다.

남씨는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며 송 대표가 구치소에서 쓴 자필 출마 선언문을 대신 읽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일부 지지자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회사원인 딸 현주씨도 29일부터 장기 연차를 내고 합류해 아버지 선거를 도울 예정이다.

22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옥중 출마한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여부는 당초 28일 발표가 예상됐지만 공판 연기에 따라 4월 초 결론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 대표의 가족은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후보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남씨는 "평생 20평대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남편 송영길과 저는 언제나 욕심 없이 살아왔다"며 "이제 처음으로 욕심을 내본다. 남편이 제 옆에서 함께 광주시민들과 만나는 욕심이다. 남편이 보석 허가를 받아 시민들을 찾아 뵙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강 기자

진보당 북구을 '올인'에 민주 '원팀' 맞대응

진보, 동남갑外 후보 캠프 윤민호 후보 지원 집중
민주, 전·현 시·구의원 중심 선대위 구성 세몰이

진보당 광주시당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올인' 모드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도 '원팀'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28일 진보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8곳 선거구 중 동남갑 지역을 제외한 7곳에서 후보가 출마했지만 지난 12일 북구을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결정하고 13일 오후부턴 6명의 선거캠프가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윤민호 후보(북구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매일 200여명의 진보당 당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오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있다.

실제 당원들은 오전에 새벽 예배 인사, 동네 곳곳 쓰레기 줍기, 출근 인사, 낮에는 상가 방문, 저녁이 되면 퇴근 인사와 또 다시 동네 쓰레기 줍기, 상가 방문, 자정이 넘어서까지 유권자들을 만나 진보당을 설명하고 인지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당원들의 자발적 움직임에 무게감을 느낀 윤민호 후보도 오전 4시30분부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새벽 예배 인사, 직업소개소 찾아 인사, 경로당 어르신 찾아 인사 등 1분, 1초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진보당이 북구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단 1석에 불과하지만 광주 정치 변화가 가능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진보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광주 발전과 광주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활력을 잃고 있는 호남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도 진보당 1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진보당의 1석은 민주당을 정신 차리게 해서 살리고, 광주의 자존심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도 살리는 1석3조, 생명과도 같은 기적의 1석, 생명의 1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의 전략에 민주당도 '원팀'으로 맞섰다.

민주당 전진숙 후보 측은 지난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북구을 전·현직 시·구의원이 함께 하는 '정권심판·국민승리 광주 북구을 선대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북구을 선대위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만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춰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대위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투표"라며 "북구을 전·현직 지방의원 모두 원팀으로 힘을 모아 전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하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목포대 의대' 유치 목소리 서남권 확산 조짐

서삼석, 목포대서 첫 선거운동 "의료 취약지 서부권 유치 필요"

'목포대 의대' 유치 목소리가 목포는 물론 영암·무안·신안을 넘어 전남 서남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영암·무안·신안)는 28일 목포대 정문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아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13일간 공식 선거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서 후보가 목포대 앞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한 것은 목포대 의대 유치가 단순히 목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 후보의 선거구를 포괄하는 전남 서남권의 공통된 관심 사항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서 후보는 이날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와 함께 글로컬대학 선정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 후보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사망한 환자는 최근 5년간 1천400여명에 달한다"며 "전국 유인도서 42%가 밀집돼 있고 전남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 지역인 전남 서부권에 의과대학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십분 발휘해 목포대 글로컬대학 선정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서 후보는 신안 지도읍으로 유세 장소를 옮겨 장날을 맞은 지도 오일장 장보기를 통해 민생 살피기에 나섰다. 소재지 상가를 연속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 후보는 "힘 있는 3선 의원이 돼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선두에 서겠다"며 "한 번 더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마저 끝내지 못한 지역 발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군민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수 기자